

현대사 순간 순간, 광주일보를 펼쳤다

호남 현대사 산증인 63년

광주일보의 역사는 전신인 옛 전남일보가 6·25 전쟁기간 중인 1952년 2월 11일 타블로이드판 2개 면의 창간호를 발행하면서 시작했다. 지령 2만호가 발행되기까지 광주일보는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12·12 사태, 5·18 광주항쟁 등 현대사의 굵직한 대변혁의 순간, '불편부당의 정론직필'을 지켜내며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 지역민에게 뉴스를 전달했다. 광주일보가 걸어온 지난 63년 3개월17일이라는 시간은 호남의 역사이자, 한국 현대사의 순간들이다.



옛 전남일보 창간호. (1952년 2월 11일자)



5·16 군사정변 당시 지면. (1961년 5월 19일자)



광주민중항쟁의 참상을 전한 김준태 시인의 시. (1980년 6월 2일자)



현정사상 첫 정권교체인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1997년 12월 19일자)



◇전쟁과 휴전=한국전쟁 중 역사적인 창간호를 발행한 광주일보는 1952년 정치·사회적 혼돈기를 정면으로 부딪쳐왔다. 국토 곳곳에 전쟁의 상흔이 자욱했고, 정치적으로는 직선제 개헌안 부결의 여파로 소용돌이를 겪고 있었다.

광주일보는 당시 사회·정치상을 반영, 1면 대부분을 판문점 휴전회담 기사로 채웠다. 또 사회면에 '폐허의 찬연한 부흥의 불꽃' 등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전쟁 후를 준비하는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기도 했다.

창간 당시 '우리의 신조'를 통해 시시비비(是非非非)와 불편부당(不偏不黨)을 내세운 광주일보는 권력과 금력에 굴하지 않고 정론의 깃발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1952년 직선제 개헌안 부결 당시 '개헌안 부결과 민심의 동향'이란 시론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했고, 제1차 통화개혁 등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민의를 대변했다.

◇3·15부정선거와 4·19혁명=1960년 3월15일은 제4대 대통령 선거일이었다. 자유당은 부정선거계약을 세워 실정에 옮겼고,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이 어수선했다.

급기야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선전부장은 '민주당운동원·참관인·선거위원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도내에서 일제히 철수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고, 광주일보는 다음날인 16일 사회면에 이 성명을 실었다. 또 새벽부터 반공청년단 원장부대가 투표소 주위에 서성거리고 있다는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기사를 스케치하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또 '마산시위사건' 이후 전국의 시위 상황을 상세히 알렸는가 하면 광주·전남지역의 4·19 혁명 소식을 신속히 보도, 시민정신을 일깨웠다. 광주일보는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된 마산상고 학생의 사망과 마산시위 사건을 17일자에 '마산에 소요사건 발생, 수천 군중시위 사상자 87명, 경찰 응급조치로 사태진압'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했다. 20일지에는 '광주서도 19일 데모 전개, 광고생 500명……'합류'라는 3줄 제목을 뽑아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이후 희생자유가족과 부상자돕기 운동에 앞장서온 광주일보는 4·19 정신을 기리기 위해 4·19기념사업을 추진했다.

1961년 5월16일 5·16군사정변이 발생했다. 사설 5·16이 발생할 때만 하더라도 광주일보는 정권의 탄압 등으로 인해 수감하는 분위기였지만 '군사혁명은 5월16일 이전과 같은 불온과 불행에 빚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와 당부를 했다. 그리고 언론계에 군부의 기사 검열과 탄압이라는 태풍이 몰아쳤다.

◇신군부의 등장과 5·18광주항쟁=1979년 12월12일 발생한 12·12사태는 80년대 정치적 불행의 알리는 사건이었다. 80년 당시 정권의 최대쟁점은 국회와 정부의 개

헌공방전이였다. 학생들은 ▲계엄령의 즉각 해제 ▲민주화 일정 제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5월18일 오전 10시 전남대생 100여 명이 학교 정문 앞에서 계엄해제 등을 요구하다 계엄군과 충돌하면서 5·18광주항쟁이 일어났다.

이 기간 국내 언론은 계엄당국의 사전검열을 받았다. 특히 계엄군 활동에 관한 보도나 학생들의 시위보도는 제약이 더욱 심했다.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와 옛 전남매일신문도 18일 오전 전남대생에 대한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 기사를 단 한 줄도 실지 못했다. 대신 '18일부터 시내버스의 전방행운행이 통제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해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이후 20일자를 제작하고 발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사설에서 '이 시련을 어떻게 슬기롭고 현명하게 극복하느냐는 곧 내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호소했다.

1952년 한국전쟁 중 창간호 발행 정론직필로 혼돈의 시대 돌파 80년대 암흑 정치 군부 검열에도 역사 현장 담고 국민 목소리 대변

광주일보는 5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10일간 휴간했다. 그리고 6월2일 1면과 3면에 5·18 관련 연재기획물을 실었다. '아아, 광주여!'라는 제목의 김준태 선생 시와 '뼈를 깎는 아픔을 참으면서...'라는 속간의 말에서는 '알려야 할 의무마저 다하지 못했다'고 반성하면서 5·18로 희생된 영령들의 명복을 빌었다.

또 광주일보는 ▲광주시민은 폭도가 아니었다 ▲광주의 5월 진상은 꼭 밝혀져야 한다 등의 목표를 세웠다. 군부의 검열 속에 기사 자체가 통째로 실리지 못하거나 잘려 나가기도 했지만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하지만 언론통폐합 조치에 따라 1980년 11월29일자를 마지막으로 옛 전남일보(지령 9643호)와 옛 전남매일신문(지령 5806호)이 광주일보로 통합됐다. 그해 12월1일 재창간호를 발행했다. 이후에도 유가족 등을 만나면서 광주일보는 끊임없이 진상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1990년대 IMF부터 2014년 세월호 참사까지=1990년대는 공안정국에서 치사정국을 거쳐 분신정국으로 넘어가던 시기였다. 1991년 4월26일 학원자주화 투쟁에 참여한 명지대 강경대 군이 백골단에게 구타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후 4월29일 전남대 박승희씨가 '강경대 치사사건 규탄과 공안통치 분쇄를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분신, 5월19일 사망했다. 그해 봄 전국적으로 10명이 신화했고, 그중 5명이 호남 출신이었다. 광주일보는 당시 국민들의 분노를 보도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고 이들의 규명운동에 앞장섰다.

1997년은 모두가 힘든 해였다. IMF 한파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지역 기업들이 하루 아침에 쓰러지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시름을 앓았다. 당시 광주일보는 지역민의 힘을 결집,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 모으기 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을 주도했다.

그해 12월에는 대한민국과 호남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현정사상 선거를 통한 첫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호남이 흘린 눈물을 닦아줄 대통령의 당선을 반기면서도 영호남 화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현장에도 광주일보가 있었다. 그해 전국은 월드컵 열기로 달아올랐다. 당시 광주일보는 전 사육인 전일빌딩 건물에 응원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했다. 특히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어낸 광주 월드컵경기장과 금남로에 모인 인파들의 열기를 전달했다.

2009년은 대한민국이 눈물을 흘린 해였다. 5월23일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고, 광주일보는 당시 봉하마을 현장에서 함께 슬퍼하며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당시 정권을 비판했다. 그리고 그해 8월 호남의 한과 설움을 대변했던 정치인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 광주일보는 호의를 발행했고, 신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던 사람을 잃었다. 사랑할 줄을 아는 모두의 애인을 잃었다'고 슬픔을 토해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하는 역사적 순간에도 광주일보가 함께했다. 광주일보는 특별 취재팀을 꾸려 2002년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계획 단계부터 고흥 나로우주센터 현장에서 2번의 실패와 1번의 연기 그리고 2013년 1월30일 나로호 발사 성공까지 11년 간의 과정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광주일보는 대한민국을 슬픔에 휩싸이게 한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지난해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이후 광주일보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현장에서 유가족의 슬픔을 전했고, 현재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네팔 대지진 현장 파견돼 현지 주민들의 참혹상을 전달하는 등 구호 활동에 앞장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1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광고고 학생들.(1960년 4월20일자) 2 네팔 대지진 사건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펴고 있는 광주 의료진들.(2015년 5월 12일자·김진수 기자) 3 2002한일월드컵 당시 광주일보는 건물을 뒤덮은 초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했다. 2002년 6월22일 대한민국과 스페인전을 응원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 앞에 모인 인파.(2002년 6월 23일자·최현배 기자) 4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 당시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 모인 시민들.